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을 탐구하다'*

## 설화를 기반으로 한 갑사 탐방 팸플릿 제작

2017. 08. 21

변준영, 박지원, 박준성

지도교사 : 이성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탐사제목 (예: ICP를 이용한 계룡산국립공원의 폭포 및 계곡의 수질 분석)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506 변준영, 1506 박지원, 1505 박준성

### 1. 탐사의 필요성

#### 가. 연구의 필요성

계룡산은 예전부터 산태극과 수태극의 형세를 이뤄 풍수지리학적으로 좋고 백제의 옛 도읍 바로 동쪽에 있어 영험한 산으로 불린다. 이러한 이유로 계룡산에는 많은 설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설화에 비해서 가장 유명한 몇 가지 만을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탓에 사람들도 대부분 계룡산의 설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설화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적인 연구조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룡산 설화의 전승 현황 파악이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 나. 연구 문제 선정의 이유

계룡산에 위치해 있는 절인 갑사는 그 탄생배경과 사찰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설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설화가 계속 사라지고 있으며, 구연과 채록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계룡산 일대의 설화에 대해 일반인에 관심을 높이고, 연구 조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 다. 문제 접근

사람들이 갑사의 설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등산객이 가장 접하기 쉬운 탐방안내도에 갑사와 그 근처의 탐과 같은 구조물에 얹힌 설화를 추가하여 새로운 갑사 탐방 안내도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는 갑사 주변을 돌며 설화를 조사하고 그 주변에 가서 답사하며 사진을 찍어 탐방안내도와 같은 책자를 만들어 보았다.

### 2. 탐사 과정

#### 가. 탐방/구두조사

- 1) 1일차: 갑사 탐방/구두 조사

1일차는 직접 갑사까지 움직이고 그 가는 길에 갑사 관련된 설화를 조사함으로써 팸플렛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조사는 국립공원에 계시는 안내자분에게 여러 가지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녹음한 후에 설화에 관련된 곳을 찾고 위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2) 2일차: 추가 자료 조사/정리, 보고서 작성

2일차에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나. 팸플렛 제작

갑사까지 가는 길을 직접 걸어보고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그저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사진을 직접 찍고 그 장소를 기록하여 팸플렛에 표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한다.

#### 1) 갑사 팸플렛

갑사 팸플렛은 A4사이즈로 1장, 양면 형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설화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위치는 설화와 함께 글로 기재하였다.



3) 3일차: ppt제작

추가적 자료조사, ppt 제작

### 3. 탐구 결과

#### 3. 탐구 결과

가. 갑사와 관련된 설화들



##### 1) 당산제(괴목대신제)

어느 날부터 갑사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육중한 갑사 대문 밖 장명등에 불을 켜 놓으면 하루 저녁을 지내지 못하고 도중에 불이 꺼지는 것이었다. 기름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한 사흘 분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도 마찬가지였다. 갑사 스님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스님들이 교대로 장명등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게 됐다. 밤이 이슥해서 대문을 지키던 스님이 잠시 용변을 보는 사이에 불이 꺼지기에 급히 나와 보니 바람 소리만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스님들은 도

독의 소행이라 여겨 먼 곳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교대로 지켰다. 어느 날 한밤중에 한 스님이 졸고 있는데 팔 척 장사가 등불 가까이에서 기름을 따르는 것이 보였다. 스님이 소리를 지르자 모두들 나와 그를 포위했다. “불전을 밝히는 기름을 훔치다니 당신은 누구요?” 하자 “나는 이 절 안에 있는 당산신이다. 사람들이 내 발치(나무뿌리)에 담배를 털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 내기 위해 기름을 가져 간 것이다. 내 원컨대 어느 여인에게 병을 앓게 하면 내가 그 병을 고쳐 줄 것이니 그 대신에 전답을 좀 얻어 내어 그 수확으로 날 잘 섬기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며 아래로 내려갔다. 그 후 중과 마을 사람들이 의논해서 제사를 지내 주었는데 이를 당산제라 하며 병이 걸려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는 불공 후 꼭 여기에 들러 기도를 드리게 했다. 여기서 기도를 드린 사람은 모두 병이 낫는 것이었다. 아무리 큰 전염병이 돌아도 당산제를 크게 지내면 이 마을 부근에는 병이 옮겨 오지 않는다 한다.

##### 2) 공우탑

지금으로부터 약 4백 년 전. 이 땅에 침입한 왜구들은 많은 절에 불을 지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노략질해 갔다. 왜구의 불길은 의상대사가 화엄대학지소를 열었던 계룡산의 천년 고찰 갑사에까지 옮겨져 천 여 칸의 화엄대찰이 일시에 잿더미로 화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왜란이 평정된 후 뿔뿔이 흩어졌던 스님들은 폐허가 된 절을 찾아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보게, 학인들이 이렇게 찾아드니 아무래도 중창불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

"시중 살림도 살림이지만 마을 신도들도 난리에 시달려 모두 생활이 어려운데 불사가 여의할까?"

난을 피해 피난을 가지 않고 절을 지킨 인호, 경순, 성안, 병운 네 스님은 갑사를 다시 중창하여 지난날처럼 많은 학인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을 이루기로 의견을 모으고 모두 탁발에 나섰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동쪽으로 길을 떠난 인호 스님은 어디선가 절박한 듯 울어대는 소 울음소리를 들었다.

"저 울음소리가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군."

인호 스님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까이 가보니 고삐가 소나무에 칭칭 감긴 어미소가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고 옆에는 송가지 한 마리가 어미소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듯 「음메에～」거리며 소나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스님은 소의 고삐를 잘라서 소를 구해 주었다.

"자 이제 시원하지?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어라."

소를 구해준 후 스님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스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탁발하기 어느덧 7년. 인호 스님을 비롯한 네 명의 스님들은 고픈 배를 주리며 비바람 풍랑 속에서 구한 시주금을 한데 모아 대웅전 건립 불사를 시작했다. 목수의 손길이 바빠지면서 법당이 제법 그 모양새를 드러내게 되자 스님들은 흐뭇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이었다. 서까래를 얹어야 하고 아직도 법당이 완성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계획한 공사금이 예산보다 훨씬 부족했다. 스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불사를 중단하고 다시 시주에 나선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인호 스님은 소 한 마리가 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인부들이 못 들어오게 내몰았으나 소는 막무가내로 들어와 인호 스님 앞에 멈춰다.

"스님,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저는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왔사옵니다. 법당 건립 불사를 제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소는 이렇게 말하고는 느릿느릿 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잠을 깬 인호 스님은 꿈이 하도 생생해서 다시 꿈 속의 소를 되살려 보았다.

"아, 바로 그 소였구나!"

인호 스님은 몇 년 전 시냇길에 구해준 소 생각이 떠올랐다. 스님이 문밖으로 나서니 이제 어찌된 일인가. 꿈에 본 소가 스님을 기다리거나 한 듯 문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소는 스님을 쳐다보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는 3일 후 서까래를 한 마차 싣고 왔다. 다시 3일 후, 이번에는 기와를 가득 싣고 왔다. 소의 도움으로 대웅전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당 마루만 깔면 불사는 완공을 볼 수 있었다.

"마루는 단단한 향나무가 좋은데..."

"향나무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번번이 소한테 신세만 질 수 없으니 이번엔 우리들이 직접 탁발에 나서도록 하세."

옛부터 울릉도 향나무와 백두산 향나무가 유명하다는 말을 들은 스님들은 2명씩 짝을 지어 한편은 백두산으로 다른 한편은 울릉도로 떠났다. 백두산에 도착한 스님들은 향나무를 구하긴 했으나 운반할 일이 걱정이었다.

인호 스님과 경순 스님이 서로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미풍이 일더니 그 바람을 타고 온 듯 갑자기 소가 나타났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운반해 드릴 것입니다. 어서 이 나무를 제 등에 앉으세요."

소는 마치 무쇠로 된 듯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도 끄떡없이 훌쩍 가버렸다. 절에 와 보니 소는 어느새 향나무를 절에 실어다놓고 또 나가는 것이었다.

소는 다시 울릉도에 나타났다. 향나무를 등에 진 소는 바다를 헤엄쳐 건너갔다. 무쇠 같던 소도 여러 차례 걸쳐 바다를 오가며 향나무를 운반하더니 지쳤는지 입가에 흰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스님들이 먹이를 주었으나 소는 먹지도 않고 여러 차례 쓰러지면서도 쉼새없이 울릉도 향나무를 물으로 옮긴 후 계룡산 불사의 현장까지 무사히 운반을 마쳤다. 필요한 향나무가 다 마련되자 목수들은 나무를 켜고 다듬어 법당 마루를 깔았다. 법당 안에는 은은한 향내음이 가득했다.

그러나 향나무 운반을 마친 후 지쳐 쓰러진 소는 영 일어나질 못했다. 법당 불사가 완공되던 날, 인호 스님 등 네 명의 스님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소에게로 갔다. 소는 큰 눈을 깜빡이며 스님들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제 할일을 다 했다는 듯 스르르 눈을 감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스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의 무덤을 잘 만들어준 후 왕생극락을 빌었다.

"아무래도 소는 우리 절과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을 걸세. 그리고 그 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법당을 중창할 수 있었겠나. 후세에까지 소의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해 탑을 세우세."

스님들은 절 입구에 소의 공을 청송하는 3층탑을 세우고 「공우탑」이라 명했다. 지금도 갑사로 오르다 보면 중창리에 석탑이 하나 서 있으니 이 탑이 바로 공우탑이다.

### 3)갑사 창건 설화

갑사는 아도화상에 의해 지어졌다. 아도화상이 계룡산을 가던 중 성스러운 빛을 발견하여 올라가니 자연석탑 안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를 보고 그 자리에 사찰을 만든 것이 지금의 갑사로 이때가 420년이였다. 사찰에 있는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데, 갑사의 진신사리는 이미 자연석탑 안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대웅전 앞에서 탑을 볼 수 없다고 한다.

## 4. 결론 및 제언

가. 활동을 하는 내내 비가 왔기 때문에 제대로 탐방을 하지 못했다.

나. 괴목대신제(당산제와 같다)의 경우, 연초에 하기 때문에 괴목대신제 현장을 직접 찍진 못했고 괴목만 찍어 왔다.

## 5. 활동 후기

변준영: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인 계룡산과 그 안의 절인 갑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오랜만에 운동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설화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지식을 얻고, 이를 팸플렛으로 만듦으로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좋은 기회였다.

박지원 : 우리나라의 설화를 조사하고 그와 연관된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더욱이 견문을 넓히고 사진 실력을 늘릴 수 있었다. 또한, 이 외에도 직접 자연속에서 원하는 사진을 찍고 이를 팸플렛을 만드는 등의 디자인 작업에 사용할 수 있어 새롭고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 6. 참고 문헌

가. 계룡산 설화에 나타난 민중 정서

나. 위키피디아.

다. 계룡산의 문화사적 의미(History culture of Kyeryong-san mountain) 저자  
윤용혁